

<서평>

***The Bible at Cultural Crossroads:  
From Translation to Communication***  
(Harriet Hill,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6)

장성길\*

## 1. 서언

본서는 나이다의 ‘역동적 동등성(Dynamic equivalence)’ 번역이론과 스퍼버와 윌슨(Sperber and Wilson)의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에 기초하여 성경 번역에 있어서 컨텍스트의 기능과 그 의미를 연구한 힐버트 힐(H. Hill)의 책이다. 필자는 1984-1998년 기간 동안 프랑스로 속하였던 남부 코트-디브와르(Côte d’Ivoire)에서 신약 성경을 아디오크로우(Adioukrou)어로 완역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당시 번역 팀과 번역 컨설턴트 모두 이견 없이 번역을 잘 마무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디오크로우 사람들은 신약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성경 저자가 의도하였던 본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기술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번역 이론과 실재의 사례 연구가 함께 배열되어 있다.

이 책은 모두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례 연구로 동일한 성경 본문을 두 문화 간에 비교 분석한 다섯 편의 연구 논문이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텍스트와 컨텍스트 간의 상호연관성에 강조점을 두고 관련성 이론의 이론을 전개해 나간다. 4-5장에서는 청중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번역 장치들을 찾는 데 할애하고 있으며, 6장은 문화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토의하면서 문화적 컨텍스트를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7-9장은 사례 연구들을 통하여 두 문화 속에 나타나는 세계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성경 번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10장은 번역 팀과 수용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간에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다.

---

\* 위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구약학.

## 2. 제1장: 관련성 있는 의사소통

‘관련성 이론’의 제일 원리는 ‘인간의 인지능력은 관련성을 최적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전제이다.<sup>1)</sup>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여 화자가 의사소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하며, 청중들이 화자의 말을 듣고 그가 전달하려는 지식이나 정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화자와 청자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근본 동기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필자는 인간의 ‘인식적 환경’이란 개념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강한 동기 부여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식의 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불러올 수 있다.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는 목적이 세계내의 인식적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정신적 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는 청중들의 필요가 무엇이며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강한 확신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인식적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다.

성경 번역에 있어서 번역자가 품고 있는 이상적 기대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열망이다. 성경 번역에 있어서 번역자는 독자들과의 컨텍스트에서 그들에게 관련성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시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아래의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한다.

## 3. 제2장: 컨텍스트와 이해력

본 단락은 컨텍스트가 의사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화자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컨텍스트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였으며,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 컨텍스트가 주입되는 방식을 조사한다. 만약 독자들이 의도된 컨텍스트에 접근할 수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함께 추론하고 본다.

필자의 의사소통 기작 방식에 대한 논의는 1963년 원거리 전기통신의 기능을 설명한 샤논과 웨이버(Shannon and Weaver)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샤논과 웨이버의 이론적 모델은 의사소통 기작을 화자에 의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수용자가 해독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sup>2)</sup> 이러한 전기통신 모델은 나이다의 ‘발신자-메

1) D. Sperber and D. Wilson,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2nd ed., Oxford: Blackwell, 1995), 260.

2) C. E. Shannon and W. Weaver,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2<sup>nd</sup> ed. (Urbana:

시지-수신자' 모델과도 일맥 상통한다.<sup>3)</sup>

화용론에서는 본문의 의미가 상황적인 요소들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해석자로 하여금 텍스트 자체로부터 컨텍스트로 관심을 돌리게 한다. 예를 들어 '언어행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특정한 상황 하에서 언어 행위를 수행하는 화자의 발화 의도가 드러나는 데 그것을 발화의 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이라 부른다.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동사들은 해석자가 발화를 해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기호론은 코드 모델을 모든 종류의 대화에 적용시켜 기호와 기의의 관계로 설명하려 한다.<sup>4)</sup> 그라이스(Grice)는 서로간에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해독(decoding) 그 자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의도를 인식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라이스가 화자의 의미를 진단할 수 있는 가설들을 제시하였으나 이론적 기반이 약하고 모호함이 있다고 비평한다. 윌슨과 카스톤 역시 그라이스의 식견이 매우 독창적인 면은 인정되나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독자들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평한다.<sup>5)</sup>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인 해결책이 스퍼버와 윌슨이 고안한 관련성 이론이라 주장한다.

필자는 많은 성경 번역(또는 선교) 이론과 번역 작업이 코드 모델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나이다의 역동적 동등성 모델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본다.<sup>6)</sup> 그러나 이외에도 스키포스(Skopos) 이론(Vermeer, Reiss)이나 기능주의(Nord), 기술적(descriptive) 번역론(Hermans), 그리고 텍스트 언어학(Textlinguistics) 등이 다양한 관점에서 번역 작업을 수행하는 데 유익한 도구가 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미디어, 신분상의 문제 또는 장르나 시·공간의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나름대로 이론에 강한 학파가 있는가 하면 기술적(descriptive) 측면에 치중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기준에서 분류해보면, 작품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과정이나 번역 기능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련성 이론은 번역자들에게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포괄적 모델(comprehensive)으로써 가능성이 있다. 관련성 이론은 의사소통을 추론적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대화자는 먼저 자신의 청중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배경 정보들을 생각하고, 그것이 기초하여 어떠한 말을 할 것인가를 구상한 후에 그들이 자신이 전달하려는 발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게 되는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3).

3) E. A. Nida,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1969), 22.

4) U. Eco, *Semiotics and philosophy of Langua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219.

5) D. Wilson and R. Caston, *On-line Course in Relevance Theory and Pragmatics*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n, 2004).

6) E. A. Nida and W. D. Reayburn, *Toward s Science Translating* (London: Tavistock, 1964).

것이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청중들의 인지적 환경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며 화자가 조성하는 컨텍스트에 맞는 가정들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소통에 있어서 의미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필자는 약간 설득력은 미약하나마 간결하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발화의 의미는 텍스트 상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동력에서부터 추론된다는 것이다. 즉, 발화는 단지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발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들었던 청중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복음서의 경우만 보아도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른 현상 속에서 기술하고 있다.

한편 화자가 어떤 내용을 발화함으로써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의 해석으로 초점을 모으도록 이끌고 있으나, 이때에 발화의 의미와 화자의 의미가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화자는 그가 말하려는 것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텍스트가 중요한 만큼 컨텍스트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려 한다.

### 3.1. 명시적 의미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그 발화된 기호를 해독해야 하는데 그 추론 과정에 있어서 맥락적 정보에 접근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먼저, 발화의 의미를 만족시키기 위함인데, 특별히 부각되지 않은 많은 요소들 가운데 화자의 의향이나 이야기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확신, 의혹, 주장, 놀람, 명령 등) 즉, 서법을 살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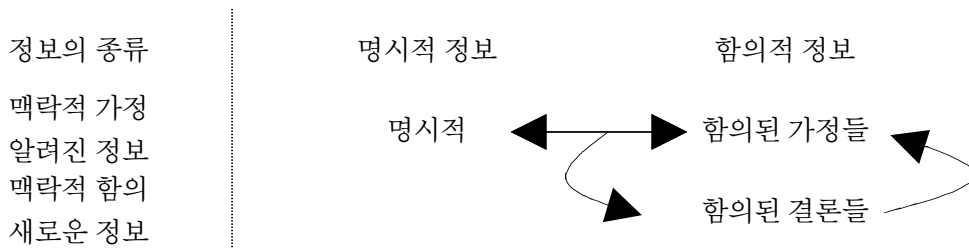
발화에는 화자의 생각과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데, 완벽하게 일치한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공통점이 있다는 논리이다. 어떤 경우에 화자는 대화의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 자신이 말하려는 의도에 관련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청중들이 그의 의도를 파악하기를 기대한다. 정 반대로 화자는 자신의 발화를 통하여 지시하는 것보다 좀 더 거시적 관점을 의도하기도 한다. 한 예로 주기도문에 나타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문구는 단순히 빵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 화자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수행해 나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셀리는 천사야!’ 하고 말했을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화자의 의도를 오해한 결과가 되고 만다.

### 3.2. 함축적 의미

함축적 의미는 발화에 의해 환기되는 가정들을 말하는데, 필자는 함의된 전제와 함의된 결론으로 세분화해서 설명한다. 먼저 함의된 전제란 청중들이 대화 속에 가져오는 가정들을 의미하며, 함의된 결론이란 두 명제 사이에 논리적 귀결로

나타나는 관계를 추론한 것을 말하는데, 대화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함축 의미를 말한다. 때 순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대화를 통하여 표현되지 않은 맥락적 가정들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가 발화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기작이다. 이것을 필자는 다음[표 1]과 같이 설명한다.

[표 1]은 맥락적 가정과 맥락적 함의 그리고 명시적 정보와 함의적 정보간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 도식을 통하여 필자는 명시적 정보와 함의된 가정들이 서로 연합하여 함의된 결론을 이끌어 낸다고 설명한다. 왼쪽 기준들을 보면 명시적 정보란 이미 청중들에 알려져 있는 정보들을 환기시키는 기능을 하며, 함의적 정보는 이미 알려진 정보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본 말에 소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스피버와 월슨에 따르면 함의된 결론은 앞서 함의된 가정들로 하여금 새로운 발화가 가능하도록 이끈다고 보았다(1995: 118). 한편 이러한 기작은 의사소통을 결속력 있게 만드는 맥락적 연속성을 가능케 한다.<sup>7)</sup>



[표 1]. 명시적, 함축적, 그리고 맥락적 정보들

### 3.3. 성경 속의 맥락

성경 저자들은 그들이 의도하는 맥락적 지식을 이미 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새로운 정보를 주입한다. 필자는 마태복음 22:15-17과 사도행전 23장을 예로 들어 그 기작을 설명하고 있다. 화자가 메시지를 선포할 그 당시와 현재와는 시간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독자들은 화자가 발화할 당시의 독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맥락적 정보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필자는 디모데전서 3:2를 예로 들어 오늘의 독자들이 화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고 있는 의미를 주장하게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오류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부적절한 가정들은 그것에 기인하여 새로운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필자는 마태복음 2:19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떠한 해석의 오류가 있었던가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반면에 오늘의 독자들이 부분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가정하고 있었을 경우에도 화자의 의도를

7) R. Blass, *Relevance Relations in Discourse: A Study with Special Reference to Sis-sal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78.

한 쪽 방향으로 몰아가거나 또는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텍스트를 읽고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가정들이 본문상에 들어 있을 때, 독자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 의미를 추론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관련성이 떨어지게 된다.

화자가 독자들의 인지적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실패한다면 다시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특히 글을 통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 책임이 독자에게 남겨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독자들이 화자가 의도하는 컨텍스트를 인지할 수 있을까? 일차적으로 독자들의 인식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련성은 화자의 능력과 환경 설정에 달렸다. 정보 분석 차원에서 볼 때, 화자가 독자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와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가에 달렸다. 이러한 기초 위에 화자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맥락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성공시킬 수 있는 키가 된다. 따라서 독자는 화자가 주장하는 발화의 진위성을 논하기에 앞서 화자의 실제적인 의사소통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 3.4. 공유적 인식 환경

힐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화자와 독자간의 의사소통이 성공하려면 인식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그 기작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보 구조 이론’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성경 번역에 있어서 오늘의 독자나 번역자는 이차 독자이기 때문에 본래의 화자와 일차 독자가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지식이나 인식적 환경(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컨텍스트)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경 번역자가 성공적으로 번역 작업을 수행하려면 일차 독자와 이차 독자간의 차이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필자는 ‘공유적 인식 환경’이란 개념을 끌어들인다. 긴 시간적 차이를 사이에 두고 다양한 대화의 주체들이 텍스트를 통하여 의사소통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오늘의 독자는 성경 저자와 자신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컨텍스트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저자(또는 화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성경 번역에 있어서 논의의 출발점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모든 세대의 사람들과 말씀하신다는 사실이다. 또한 동시에 인간 저자는 한 명의 대화자로 그 대화 속에 참여하게 되며, 오늘의 성경 번역자 역시 한 명의 대화자로 참여하게 된다. 번역자들은 자신들의 인식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청중들을 향해 원래의 성경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독자들은 성경의 인간 저자들과 본래의 독자들과의 역동적 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본문 이해의 순서는 먼저 화자가 자신의 일차적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여기

서 오늘의 독자는 화자와 일차 독자가 서로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컨텍스트를 상정하여 텍스트를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일차 독자들에게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저자들에게 대한 이해와 본문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선지식은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키가 된다.

한편 발화를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정보들은 유사한 개념들을 한데 묶어주는 데이터 전송망을 통해 인간의 기억 속에 저장된다. 이러한 장치를 인지 언어학자들은 시나리오 또는 스크립트라 부르는데, 하나의 개념이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특성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네트워크라는 장치가 우리의 사고 속에서 맥락적 정보들을 조직화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오늘의 독자들이 어떻게 그러한 시나리오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다양한 가설들의 접근 가능성이 논의되어야 하며 다음 장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 4. 제3장: 컨텍스트 세우기

3장은 2장의 핵심 의제였던 공유적 인식 환경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화자의 인식적 환경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차 독자의 인식적 환경이 있다고 보고, 그 갭을 맥락적 차원에서의 조절 요소들을 통하여 연결시킴으로 이차적 독자들이 마치 원 독자들이 공유하였던 것과 유사한 인식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보구조 이론을 바탕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도표를 통하여 자기가 말하려는 의미를 파악하도록 돕고 있다.

	독자가 공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	독자가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실제적인 공유정보	1. 의도된 가정들	2. 인식되지 않은 가정들
공유되지 못한 정보	3. 의도되지 않은 가정들	4. 보이지 않는 가정들

[표 2] 컨텍스트 조정의 목표

필자는 인간이 스스로 경험하지도 또는 보지도 못한 것들을 자신의 사고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식적 능력을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한다.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인식적 기능은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실체를 인식하기 2.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기 3. 내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기. 여기서 필자는 메타 언어적 이론을 빌려 설명을 계속 이어간다. 메타 언어의 가장 흔한 정의는 ‘언어에 대한 언어’인데, 우리의 논의에서는 이것에 빗대어 ‘사고에 대한 사고’(또는 표상에 대한 표상)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것을 메타표상이라 부른다. 필자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메타 표상적 능력을 활용한다고 말한다. 비록 성경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컨텍스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직관적으로 성경의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이끌어가는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독자들의 실재(reality)는 텍스트와 엄청난 시간과 공간상의 갭이 있어서 성경 텍스트의 원 독자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차 독자가 스스로 조정 작업을 통하여 일차 독자들이 성경 저자들과 공유하였던 환경에 근접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차 독자의 공유적 인식 환경은 매우 역동적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도표에서 [항목 1]은 두 개의 상이한 문화가 완전히 일치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수용자가 성경 저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수용자 스스로 그것은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항목 2]의 경우는, 번역자가 일차적 독자들의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맥락이라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성경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무지는 번역자들로 하여금 일차 독자와 이차 수용자간의 유사점을 분간하지 못하게 만든다. [항목 3]의 경우에는 화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수용자가 공유하고 있다고 오해를 불러온 경우이다. 이와 같이 모순된 가설들은 의도된 가설로 적절하게 대처되어야 할 것이다. [항목 4]는 화자가 의도하는 컨텍스트가 수용자의 인식적 환경과 완전히 분리된 상황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 즉, 필자가 말하는 ‘맥락적 조정 요소들’을 배경 정보로써 활용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화자가 본래 의도하였던 환경을 추론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연관지어 생각할 때, 텍스트 번역에 있어서 맥락적 조정 정보들은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정보들은 수용자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만큼 소통에 있어서 관련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모든 정보가 배경 정보로써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주어진 배경 정보가 수용자의 인식 가능한 지식이어야 한다. 둘째, 성경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해야 한다.

한편 컨텍스트 조정 자료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추론을 이끌어내도록 하려면, 필요한 만큼의 최적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어떠한 함축적 결론이 명확하게 주어진다면, 이러한 함축적 결론은 수용자의 기억 속에 남아서 또 다른 추론 과정을 돕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번역자의 목표는 수용자가



본문상에 화자가 의도하는 추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 텍스트의 의미는 다양한 층위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차 수용자가 하루 아침에 성경 텍스트의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5. 제4장: 관련성을 갖춘 번역물의 디자인과 효과

본 단락은 성경 번역에 있어서 맥락적 조정 성분들이 이차 독자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실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실제로 밥 돌리(B. Dooley)라는 구아라니(guarani)어 성경 번역자는 신약 성경 수정판을 출간했을 때, 오히려 독자들의 반응이 초판보다 못한 경험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말은 성경 번역자들이 독자들의 수용 능력과 선호도에 고려하여 번역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 번역은 원천 언어의 내용을 목적 언어로 있는 그대로 옮겨 놓은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번역자가 독자들로부터 의사소통의 효과를 이끌어내려면 독자들과 관련 있는 번역본의 스타일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번역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독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필자는 성경 번역 작업은 독자들의 기대치와 배경 지식에 크게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청중들에게 원 텍스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둘 수도 있으며, 까다로운 구절에서는 수용자의 컨텍스트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누가복음 11:14-20을 아디오크로우(Adioukrou)어로 번역하면서 원문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어휘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하였던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더 나아가 오늘의 독자들이 화자가 의도하였던 맥락적 가정들에 친숙하지 못하거나 본문의 배경적 지식이 미약한 경우, 텍스트가 의도하는 본래의 의미에 근접해 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번역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청중의 컨텍스트에 민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자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맥락적 정보들이 미약한 번역본은 잘 선택하는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역학관계로 인하여 번역 작업에 있어서 ‘주석이나 해석을 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던 세계성서공회연합(United Bible Societies)가 1956년 ‘교리상의 주석이나 해석 없이’로 정책을 수정하였다. 유진 나이다는 토착민들과 함께 번역작업을 수행하면서 성경의 배경 정보가 토착민들이 번역본을 이해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한편 필자의 경우에도 자기가 성경을 아디오크로우어로 번역할 때의 문제점은 언어적 장벽보다 문화적(맥락적) 간극이 훨씬 더 심각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각종 미디어를 활용하여 성경 본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갈 수 있으며, 토착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번역된 성경은 토착민들이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 6. 제5장: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방법들

본 단락은 번역 작업에 있어서 어떻게 적절한 컨텍스트 조정 자료들을 번역본에 보충할 것인가 하는 실재적인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만약 번역자가 이차 독자들의 컨텍스트를 충실히 고려하여 번역할 경우 번역의 초점은 ‘화자가 무엇을 말했는가’보다는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 필자는 성경 번역본에 컨텍스트 정보를 첨부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는 외부로부터 자료를 가져와서 텍스트에 첨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텍스트 내에서 컨텍스트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 6.1. 외부로부터 해결하는 방법들

외부로부터 자료를 가져올 경우, 보충되는 컨텍스트 정보는 원 텍스트와는 별개의 자료인 것이다. 이 경우에 독자들은 제공되는 정보가 원래의 성경 텍스트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차 자료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정보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보면 서론을 쓰거나, 표제 부분을 넣을 수도 있고, 각주나 해설 또는 용어집, 지도 등을 통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높여갈 수 있다.

### 6.2. 텍스트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들

필자는 두 가지 실재적인 방법을 예로 들고 있다. 첫째는 성경 스토리 분석에 적용하는 방법과 해설을 첨부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성경 스토리 북은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빈약한 계층의 독자들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간편하게 제작한 것이다. 이러한 스토리 북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맥락적 배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완역본의 경우에도 컨텍스트 조정 자료들을 첨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절수를 삭제하기도 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각주로 첨부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러한 다양한 컨텍스트 조장 장치들은 청중들의 부족한 필요를 채워 나가기 위한 것으로 번역자는 독자들의 수용 능력과 선호도를 중시하여 컨텍스트 조정 자료들을 조절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7. 제6장: 문화 탐구

6장은 성경 번역에 있어서 문화적 탐구의 가치를 논하고 있다. 필자는 성경 번역자들이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탐구가 필히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번역자들이 원천언어와 수용언어의 언어적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데 반하여 문화적 영역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필자의 관점에서는 텍스트가 미치는 영향만큼 컨텍스트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텍스트상에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정보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나 단지 암시된 가정들은 인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성경 번역자는 문화의 본질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번역자는 텍스트의 일차적 독자가 자리하는 문화와 오늘의 2차 독자가 살고 있는 문화를 잘 숙지하여 두 문화간에 연관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번역자들이 수용자의 언어와 문화가 무가치하다는 신념을 고수한다면, 수용자의 문화와는 큰 괴리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번역 작품은 모국어의 가치를 살릴 수 없게 된다.

문화는 특성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통하여 변화해 간다. 문화는 역동적이며, 외부의 영향력에 따라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워낙 방대한 일이라서 개인이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팀을 이루어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성경 번역을 위하여 문화를 탐구하고자 할 때 연구를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주제적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 본문에 기초한 연구라고 소개한다. 주제적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성경 번역자가 수용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독특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인 성경 본문을 기초로 한 연구 방법은 일반적인 문화탐구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 번역에 있어서 이러한 방법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본문에 있어서 일차 독자와 이차 독자가 떠올릴 수 있는 맥락적 가정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문화 탐구는 성경 번역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연구의 목표는 텍스트 수용자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 8. 제7장: 주후 1세기 유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

본 장은 성경 속의 문화의 일면을 주후 1세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을 통하여 살펴보고 8장에서는 오디오크로우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

나는지를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7장은 두 가지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데, 먼저 1세기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치적 자치권을 상실하고 망명자 신분으로 살면서 종교적 신념과 종교 의식이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식’, 사후 세계, 영적인 존재들, 사탄 그리고 점성술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존재들에 대한 사고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해갔다는 주장이다. 구약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포로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유대 문학에서는 천사나 사탄이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가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세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나타난다. 구약성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시하였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소망은 점차 설득력을 잃게 되고, 1세기 유대인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나,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도 점차 관심을 기울이고 되었다고 설명한다. 한편 주후 2세기경, 유대인들은 영적 세계를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로 이분화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구약 성경에서는 단지 세 번 고유 명사로 언급될 뿐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주된 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 9. 제9장: 요한복음 13장 1-30절에서 ‘맥락적 부조화’를 식별하여 재조정하기

제 9장은 요한복음 13.1-30을 하나의 사례 연구로 정하여 1세기 유대인들이 가졌던 컨텍스트 상의 가정들과 이차 독자에 속하는 아디오크로우 사람들이 공유하는 인식적 환경을 서로 비교하여 두 문화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것이다. 먼저 요한복음 13장에 한정하여 설명할 때에 아디오크로우 사람들이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 의도된 맥락적 가정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그 이유를 두 문화간에 유사성(예를 들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관습이나 개개인의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그리고 노예제도가 잔존하는)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차이점도 나타나는 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절기 중의 하나였던 유월절이다. 유월절은 아디오크로우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추론할 수 없는 생소한 개념인 것이다.

한편 어떤 개념은 성경 본문 속에 전혀 의도되지 않았던 개념들이 이차 독자의 문화나 미신 때문에 역 주입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디오크로 우 말로 *agn*(마력)이 음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들의 미신적 생각이다. 이러한 사례 연구는 성경 번역에 있어서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점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성경의 독특한 신학적 개념들이 토착 언어의 문화나 미신의 영향으로 개념상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번역자가 수용언어의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10. 제10장: 의사소통의 맥락

마지막 단락은 번역 작업을 수행하는 번역 팀과 수용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간의 관계와 서로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토착민들에게 꼭 필요한 성경 번역본을 완성해 내려면 무엇보다 어떠한 스타일로 번역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번역본을 구상해야 하는지, 각종 미디어는 활용할 것인지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필자는 성경 번역자들이 수용 언어 공동체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번역자와 토착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왜 번역 팀이 교회 공동체와 제휴해야만 하는가? 필자의 견해는 교회가 성경 번역 작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성경은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북아프리카 지역이 한때는 기독교의 중심지였으나 주전 7세기에 이슬람화 되었다. 그러나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성경 번역이 선교 전략의 전부가 아니며, 하나의 고립된 선교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 번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토착민들의 삶이 성경을 통하여 변화되는 데 있다. 이러한 성경 번역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번역은 교회의 선교 전략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때 주로 텍스트의 언어적, 구문론적 특성이나 번역 원리 그리고 성경 언어에 대하여 가르치지만, 한편으로 그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특별히 번역 성경을 원하는 많은 공동체가 실상은 번역 작업이 매우 복잡적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신학적 이슈’의 문제나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번역본을 읽는 대상을 결정하는 문제’ 등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 11. 제11장: 결론과 함의적 내용

필자는 자신이 아디오크로우어 성경 번역에 참여하면서 많은 어휘들이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고 있다. 토착민들이 종종 텍스트의 의미까지는 파악했으나 저자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한다. 한편 그들은 성경의 세계가 자신들의 세계와는 단절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필자는 앞서 7-9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디오크로우어와 1세기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차이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유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필자는 연관성 이론에 힘입어 성경 번역에 있어서 컨텍스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컨텍스트 조정 성분들과 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결론에서 세 가지 전제를 언급하는데, 먼저 의사소통에 있어서 컨텍스트를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사소통이란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만일 이차 독자들이 텍스트에 의도된 맥락적 배경 정보들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면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전제는 변화하는 실재이다. 즉, 컨텍스트가 매우 역동적이라는 의미이다. 세 번째 전제는 문화적 연구가 필수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 12. 평가와 결론

지금까지 간략하게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평자는 본서에 나타나는 핵심 이슈들을 비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책의 구성과 관련하여 지적할 것은 1장부터 3장까지 할애하여 전개되고 있는 힐(Hill)의 번역 이론 부분이 사례 연구 부분(7-9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논리적 전개가 치밀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별히 필자는 2장과 3장에서 전체 내용의 이론적 뼈대를 세워 나간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자신의 이론적 체계를 뒷받침하는 폭넓은 논의가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컨텍스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컨텍스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나름의 장치들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수용언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의 컨텍스트를 어떻게 파악해 낼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 기술이 요구된다. 더구나 서로 상이한 언어학적 개념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또 다른 개념들과 연속적으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나타난다. 정보분석 이론을 시작으로 공유적

인식환경이라는 인지 언어학적 개념을 활용하고 있고, 6장에서는 전혀 다른 영역인 문화적 영역을 다루고 있다. 힐은 무엇보다 책 전체를 통하여 컨텍스트를 강조한다. 힐의 관점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경 연구가 텍스트 자체를 분석하는 데 강조점이 있었다고 보았다. 반면에 성경 번역에 있어서 요구되는 컨텍스트나 문화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컨텍스트와 각각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 번역에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키가 된다고 주장한다.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함에 있어서 화자보다는 화자와 독자의 상호 관계성을 중시하며, 특히 독자의 수용능력과 화자와 독자가 거주하는 두 문화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의 기반은 최근 성경 번역의 중요한 번역 이론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스퍼버와 윌슨이 주창한 ‘관련성 이론’과 나이다의 ‘역동적 동등성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관련성 이론과 문화 또는 내용 동등성 이론과 번역 장치에 대한 논의를 관련 학자들의 주장을 통하여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과 사례 연구가 매우 산발적이며, 이론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

힐이 지지하고 있는 나이다의 번역 이론의 기초는 역동적 동등성이 형식 동등성에 우선한다는 가설이다. 특히 나이다는 번역의 초점을 화자와 독자간의 의사소통에 두고 있으며 언어 전달보다는 의미 전달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이다의 공헌은 단순히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의 언어적 비교에 머물렀던 번역자들의 관심을 두 문화간의 의사소통의 관계에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힐의 연구의 가치는 나이다의 동태적 등가성 이론에 덧붙여 정보 구조 이론을 도입하여 인간의 사고 체계 내의 컨텍스트 조정 능력을 번역 이론에 접목시켰다는 점이다.

20세기 이후에 언어학의 흐름은 언어 체계에 대한 관심에서 언어 사용으로 넘어가면서 점차 언어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힐은 텍스트보다는 컨텍스트를 강조한다. 하지만 번역에 핵심은 원 텍스트에 대한 바른 해석과 이해라고 서평자는 생각한다. 힐이 사례 연구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한 자료들을 통하여 성경 번역에 있어서 컨텍스트와 문화가 매우 중요하며, 맥락적 조정 성분들이 이차 독자가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 언어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지식과 화자의 발화 의도는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점이다. 그렇다면 컨텍스트에 대한 제반 지식이 풍부하고 두 언어와 문화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들을 파악했다고 해서 성경 번역을 완성할 수 있는가? 화자의 발화 의도는 텍스트 상에서 본문이 전개되는 다양한 정치들을 통하여 드러나며, 또한 동시에 텍스트의 의미는 독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따

라서 서평자는 텍스트 자체의 결속성과 결속구조와 같은 원천언어의 특성이 번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간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구문론/의미론적 차원에서 두 언어 간의 유사성과 상이점들이 각각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 수사학적 측면에서의 전달 장치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필자가 8장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화간의 어떠한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경 번역에 있어서 영적 존재들에 대한 토착민들의 사고체계나 신관에 있어서의 독특성은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와 아울러 필자가 3장 서두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듯이, 언어 행위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성경 번역에 있어서 화자의 발화 의도는 텍스트의 일차적 의미를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의사 소통에 있어서 화자의 의도는 화수행위를 통하여 가장 잘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는 발화의 의미가 텍스트 상에 내포되어 있다기보다는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동력에서부터 추론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청중들의 기억과 인식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서평자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며, 그것을 원천 언어의 배경 속에서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 일차적인 작업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나서 수용언어의 특성과 청중들의 인식 능력을 고려하여 번역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이어지는 수순이 아닌가 판단된다.

더 나아가 본문 내에서의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으로 각각의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화적 특징과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번역에 있어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요소인 것도 물론 사실이다. 오늘의 이차 독자 그들이 그들의 세계관과 문화의 차이 때문에 일차 독자들의 문화와 세계관에 대하여 이질감이나 긴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번역자는 문화와 문화간의 맥락적 부조화를 조정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 번역자의 사명은 조정자의 역할이 아니라 화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있는 그대로 오늘의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주제어>(Keywords)

성경 번역, 인식적 환경, 컨텍스트와 이해력, 문화, 컨텍스트 조정 요소들.

Bible Translation, cognitive environment, context and comprehension, culture, contextual adjustment materials.



\* 참고문헌(References)

- Blass, R., *Relevance Relations in Discourse: A Study with Special Reference to Sis-sal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Eco, U., *Semiotics and philosophy of Langua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 Nida, E. A., and Reyburn, W. D., *Towards Science Translating*, London: Tavistock, 1964.
- Nida, E. A.,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1969.
- Shannon, C. E., and Weaver, W.,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2nd ed.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3.
- Sperber, D. and Wilson, D.,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2nd, ed., Oxford: Blackwell, 1995.
- Wilson, D. and Caston, R., *On-line Course in Relevance Theory and Pragmatics*,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n, 2004.

<Abstract>

Book Review-The Bible at Cultural Crossroads: From Translation to  
Communication

(Harriet Hill: St. Jerome Publishing, 2006)

Prof. Sung-Gil Jang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is paper reviews Harriet Hill's recent book entitled *The Bible at Cultural Crossroads*, which seeks to demonstrate the significance of the context and cultural research in Bible translation. Her idea is basically based on the relevance theory by Superber and Wilson (1995) and also Nida's dynamic equivalence (1969). The structure of this book is composed of eleven chapters including introduction and conclusion. In addition, she includes three chapters of case studies from chapters 7 to 9.

In particular, she has processed her idea by way of information structure.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structure theory, information can be divided as two different types: known and new. On this basis, she explains communication a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xtual assumption (that is, known information) and contextual implications (that is, new information). In Bible translation, context is limited by the mutual cognitive environment between the communicator and audience. The goal of communication is to infer the speaker's intended meaning for the first audience to the second audience identity. However, if the audience may not assess the intended assumption, she/he does not comprehend the textual meaning. Ignorance of the biblical culture and the receptor's culture can be blind the translators to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at exist between them.

In conclusion, Hill's contextual adjustment material analysis made a contribution to identifying the local translators about the influence of the context and the culture in translation.